

제조업 경기 다시 살아난다?

지경부, 2/4분기 BSI 104 ... 반도체·정밀기기·철강 호조

국내 제조기업들은 1/4분기 부진했던 경기가 2/4분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.

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은 3월1-23일 국내 제조기업 508사를 대상으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(BSI)를 조사한 결과, 1/4분기 실적지수가 88로 2011년 4/4분기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3월29일 발표했다.

최근 들어 실적지수는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여 2011년 2/4분기 101에서 3/4분기 91, 4/4분기 90으로 떨어진 후 2012년 1/4분기에 88로 더 떨어졌다.

매출(87), 내수(85), 수출(91), 경상이익(82) 등에서 모두 부진했다.

업종별로도 반도체(126)와 전기기계(103)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저조했다.

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의욕적으로 투자계획을 발표해 전반적으로 체감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2/4분기 경기전망지수는 104로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.

업종별로는 조선(80), 비금속·석유정제(97) 등을 제외한 모두가 2/4분기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.

특히, 반도체(133), 정밀기기(120), 철강(112) 업종은 2/4분기에 상당한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부문별로는 매출(111), 내수(107), 수출(106), 경상이익(100) 모두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.

지경부는 미국 경기가 실업률 하락 등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, 한미 FTA(자유무역협정) 발효 효과에 대한 기대로 2/4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3/29>